

휴관일

기회 조주현

주최 (재)광주비엔날레, 광주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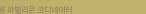
후원 주한네덜란드대사관, 몬드리안펀드, 네덜란드 교육문화과학부,

프로젝트 팀 요신 피터르서, 카스 볼 (프레이머 프레임드, 공동 창립자 및 프로덕션 코디네이터); 폴 카이퍼스 (건축); 표창연 (설치 및 시공);

제 14회 광주비엔날레 네덜란드 파빌리온 The Netherlands Pavilion at the 14th Gwangju Bienn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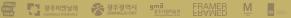


큐레이터 조주현 Curated by Juhyun Cho























살인하는 자는 또 다른 살인자를 만나고 정복하는 자는 또 다른 정복자를 만나나니. 학대하는 자는 또 다른 학대자를 만나고 욕설하는 자는 또 다른 욕설자를 만나나니. 업은 이처럼 돌고 돌아 약탈하는 자, 약탈을 당하게 되도다.

– 석가모니 ⟨상윳따 니까야⟩ The Killer begets a killer; One who conquers, a conqueror. The abuser begets abuse, The reviler, one who reviles. Thus by the unfolding of karma, The plunderer is plundered.

Gautama Buddha,
The Saṃyutta Niakya (Sangama Sutta)

Court for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세대간 기후범죄 재판소

라다 드수자 Radha D'Souza

EXTINCTION WARS 멸종 전쟁

요나스 스탈 Jonas Staal

자본주의와 식민주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자연과 인간을 적대하는 군사작전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 이러한 군사행동을 통해 과거 500년 동안 인간, 동물, 식물 공동체와 같은 살아있는 세계의 절멸을 기도했으며 우리는 이를 멸종전쟁 (extinction wars)이라 간주한다.

이는 암스테르담 소재 프레이머 프레임드(Framer Framed)의 공동 커미션으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네덜란드 파빌리온에서 학자, 작가, 변호사, 활동가인 라다 드수자와 요나스 스탈이 구상한 작업인 〈세대간 기후범죄 재판소〉(CICC) 전시와 증거재판의 중심 주제이다. 모래주머니, 기름통, 철조망으로 재현한 최전선(military frontlines)으로 조성된 몰입적 설치물에서 드수자와 스탈은 한국의 군산복합체를 강조하며 국가와 기업에 의해 영속화된 기후범죄를 기소하는 대안적인 법정을 제시한다.

도수자의 저서 〈권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What's Wrong with Rights?)(2018)에 기반해 드수자와 스탈은 2021년 국가와 기업이 저지른 환경범죄를 기소할 목적으로 세대간 기후범죄 재판소(이하 재판소)를 설립했다. 드수자와 스탈은 암스테르담 프레이머 프레임드에서 처음 증거 심리를 개최했으며 네덜란드 정부와 네덜란드에 등록한 다국적 기업(유니레버, ING 그룹, 에어버스)을 재판에 회부했다. 검사와 증인들이 이들 피의자에 대해 증거를 제공했으며 대중이

Capitalism and colonialism are possible only by waging military campaigns against natures and peoples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e annihilation of these living worlds of human, animal, and plant communities over the past 500 years constitute extinction wars.

This is the central proposition of the exhibition and series of evidentiary hearings which introduces the project *Court for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or "CICC," by academic, writer, lawyer and activist Radha D'Souza and artist Jonas Staal, curated by Juhyun Cho, at the Netherlands Pavilion of the 14th Gwangju Biennale, co-commissioned and coproduced by Framer Framed, Amsterdam. In an immersive installation comprising of military frontlines constructed from sandbags, oil barrels, and barbed wire, D'Souza and Staal present an alternative court to prosecute climate crimes perpetuated by states and corporations with an emphasis on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in the Republic of Korea.

Based on D'Souza's book *What's Wrong With Rights?* (2018), D'Souza and Staal founded the CICC in 2021, with the aim to prosecute past, present,

배심원으로 참여해 세대간 기후범죄 재판소의 법률적 토대인 세대간 기후범죄법에 근거한 평결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했다.

설립 이후 CICC는 지속적으로 환경범죄자들의 책임을 추궁해왔다. CICC는 화석연료의 잔재인 서울 문화비축기지에서 법이 인간과 자연에 대한 범죄를 합법화하고 있다는 혐의를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재판정에 선 법〉(Law on Trial) 이라는 이름으로 법정을 세웠다. 같은 해, CICC는 핀란드 의회 앞에서 군중들이 국가가 승인한 환경범죄에 의해 멸종한 동물들의 모습을 담은 피켓을 들고 〈멸종에 대항하는 동지들〉 (Comrades Against Extinction)이라는 이름으로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인간공동체, 그리고 인간과 함께 번성했던 동물이나 식물의 대량멸종을 초래한 제1의 물결(the first waves)은 식민지 시대에 시작되었다. 식민주의와 이의 군사적 기구는 식민지법에 기반해 살아있는 세계를 소유물이나 상품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후위기는 식민지 법에 의해 조직된 지배기관에 의해 지원받거나 사주 받은, 500년 동안 계속 진행된 식민주의 위기이기도 하다. 멸종된 동식물의 이미지가 재판소에 설치된 모래주머니, 기름통, 철조망으로 재현한 전선(frontlines) 과 함께 전시된다. 광주에 전시된 〈멸종전쟁〉(Extinction Wars) 설치작품은 살기 좋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지속적으로 정의하는 장구한 기후범죄 역사에 대한 증언이다. 그러나 그들의 현존은 또한 제품이나 상품이 아니라 비인간 조상, 혹은 심지어 동지로서 이들을 인식해야 한다는 요구라 할 수 있다. 군산복합체에 의해 치러진 멸종전쟁의 전선에 대항해 우리의 대지, 물, 흙을 유지하고, 살아있는 세계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전선을 세워야 할 시간이다.

and future climate crimes committed by states and corporations. During the CICC's first iteration at Framer Framed in Amsterdam, D'Souza and Staal organized public hearings in which the Dutch state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registered in the Netherlands (Unilever, ING Group, and Airbus) were put on trial. Prosecutors and witnesses provided evidence against the accused parties. The public acted as jury and were tasked with passing a verdict based on the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Act: the legal foundation of the CICC.

Since its founding the CICC has continued to hold climate criminals to account. In 2022, it organized the chapter *The Law on Trial* in the fossil ruins of the Oil Tank Culture Park in Seoul, to further investigate the implications of the law in legitimizing crimes against peoples and natures. In the same year, the CICC organized a mass public procession in Helsinki in front of the Finnish parliament entitled *Comrades Against Extinction*, carrying evidence in the form of banners of animals made extinct by state-sanctioned climate crimes.

The first waves of mass extinctions amongst human communities, and the animal and plant life that thrived with them, began during the colonial period. Colonialism and its military apparatus turned living worlds into property and commodities. a transformation made possible by colonial law. In this light, the climate crisis is a colonial crisis that has been ongoing for the past 500 years - aided and abetted by dominant institutions established by law, and the imaginaries that envisioned them. The images of animals and plants made extinct that emerge from the frontlines of sandbags, oil barrels, and barbed wire in the CICC: Extinction Wars installation in Gwangju, are evidence of that long history of climate criminality that continues to define our present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livable futures. However, their presence is also a call to recognize them not as products or commodities, but as non-human ancestors, as comrades even. Against the frontlines of the extinction wars waged by the military industrial complex, it is time to hold our ground, water, soil, and set up our own frontlines in defense of living worlds for all.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QR 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For more information, please scan the QR code

서문

Introduction



1 전시실: 세대간 기후범죄법

〈세대간 기후범죄법〉(The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Act)(2021)에서는 기름통을 쌓아 놓은 모습에서 전쟁기계의 폭력적 구조가 유발하는 다른 선언을 만난다. 재판소의 핵심인 상상의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이 대안적인 법은 한 세대가 가진 독점적인 권리를 부정하고 대신 여러 세대에 걸쳐 상호의존적인 재생의 틀을 제안한다. 이런 이유로 구호는 세대간 상호작용, 상호의존, 재생이 될 것이다.

〈멸종한 동지들〉(Comrades in Extinction)(2020-21) 연작 일부로 동물 그림이 그려진 샛노란 표지판을 만날 수 있다. 이 동물들은 과거 500년 동안 멸종한 동물들을 대표하며 기후재앙이 산업화가 아니라 대량멸종의 제1파도를 촉발한 식민화에 의해 초래되었음을 증언한다. 기후위기는 50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식민주의 위기로 간주되어야 한다.

멸종한 동물들은 표지판 위에 이들의 학명 대신 서로 다른 언어로 (거의 사멸한 언어로) "동지"라고 표기되어 있다. 동지애를 선언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견해에 대한 충성을 단언하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 공동의 미래를 부정하기 위해 치러지는 멸종전쟁에 대항해, 혹은 이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법칙이나 생존하고 번식하고자 하는 생명체의 욕구에 진실한 것은 재생(regeneration)이라 할 수 있다.

ROOM I: THE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ACT**

Sandbags, oil barrels, and barbed wire represent the frontlines of extinction wars set up by the fossil fueled military-industrial complex: a war that has turned the extinction of the many into profit for the few.

encounters oil barrel stacks carrying a different declaration: The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Act (2021). This alternative legal imaginary central to the CICC rejects proprietary "rights," and instead proposes a framework of interdependent regeneration across generations, hence the slogan: Intergenerational, Interdependent, Regenerational.

Arising amidst the war machine's violent structures, one

From the frontlines, bright yellow signs with animal paintings emerge as part of the series titled Comrades in Extinction (2020-21). Representing species made extinct in the past five centuries, they evidence the fact that climate catastrophe began not with industrialization but with colonization, which triggered the first wave of mass extinction. The climate crisis should be considered a colonial crisis 500 years in the making.

On the signs, instead of their scientific names, extinct animals are declared "comrades" in different - sometimes near extinct – languages. Declaring comradeship affirms fidelity to a different politics: one of regeneration, truthful to the law of life and life's desire to live and thrive, against and in spite of the extinction wars waged against the possibility of common futures for all.

2 전시실: 세대간 기후범죄 재판소

이 작품은 모래주머니와 철조망을 이용해 인간 너머의 재판소(a morethan-human tribunal), 세대간 기후범죄 재판소를 재현한 것이다. 4월 7일과 8일, 그리고 9일 한국적인 맥락에서 세대간 환경범죄를 다루는 증거심리가 열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대중은 배심원으로 참석해 검사와 여러 사회운동, 기후정의 단체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며 활동가나 노동조직은 발언할 기회를 갖는다.

군산복합체에 의해 자행되는 기후범죄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만의 전선을 제시하며 재판소는 첫 공간에서 멸종전쟁의 여러 다양한 전선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

견고한 구조를 가진 재판소의 중앙에는 〈멸종전쟁〉(2023)이라고 쓰인 텍스트 작업이 설치된다. 경화유로 '멸종전쟁' 혹은 'EXTINCTION WARS'와 같은 글자가 형상화되어 있다. 군산복합체에게 석유는 그저 자신들의 전쟁기계를 위한 연료일 뿐이나 드수자와 스탈에게는 땅의 기억을 의미한다. 즉 수백만 년 동안 식물과 동물이 분해되어 생성된, 지모신의 피이다.

재판소가 휴정일 때에는 비디오 〈세대간 기후범죄 재판소〉 (The Court for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2021, 12:32) 를 상영한다. 이 비디오는 암스테르담 프레이머 프레임드에서 열린 첫 번째 공청회 장면과 함께 재판소의 핵심개념을 소개한다. 이곳에서는 네덜란드 정부와 유니레버, ING 그룹, 에어버스 등과 같은 네덜란드에 등록된 다국적 기업들을 세대 간 환경범죄 행위로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ROOM II: COURT FOR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Made up of sandbags and barbed wire, this is a more-thanhuman tribunal: the Court for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On April 7, 8, and 9, evidentiary hearings on the role of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in the Korean context will take place here, with an emphasis on the recurring role of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Here, the public will gather as jury to hear prosecutors and witnesses from various social movements, climate justice platforms, and activist and labor organizations speak.

Proposing a frontline of our own to overcome the climate criminality of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the Court for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offers an alternative to the various frontlines of extinction wars in the first space.

At the center of the court's solid structure of collective gathering, a text work entitled Extinction Wars (2023) can be found. Hardened oil letters literally shape the words: "멸종 전쟁", or, "EXTINCTION WARS". To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oil represents nothing but the fuel for their war machine. For D'Souza and Staal, oil means earth memory: millions of years of plant and animal decomposition the blood of Mother Earth.

The video Court for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2021, 12:32 min) is displayed when the court is not in session, which introduces the core ideas of the CICC in combination with footage of its first public hearings that took place in Framer Framed, Amsterdam, where the Dutch state and Dutch-registered corporations Unilever, ING Group, and Airbus were prosecuted and found guilty of committing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3 전시실: 멸종한 동지들

연작 〈멸종한 동지들〉(Comrades in Extinction)(2020-21)의 일부로 멸종한 식물이 그려진 표지판을 높이 설치한다. 각각의 표지판에는 서로 다른 언어로 이 식물들을 '동지'라 칭한다. 가까이서 보면 이 식물들의 외형은 작은 테이프와 줄로 유지되어 있는데, 이는 집단학살된 이들 식물 유기체들의 유령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자 시도한 과학자들의 흔적이다.

이 식물들은, 세계에 관심이 없으며 이들을 단지 소유하고자 한 멸종전쟁을 치르는 자들에게 식민적 "발견"(colonial "discovery") 이라는 왜곡된 개념이 내재적으로 삭제(erasure)와 관련이 있음을 폭력적으로 상기시킨다. 재판소가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소유, 혹은 소위 소유권은 죽음이나 멸종과 동의어이다.

4 전시실:

멸종에 저항하는 동지들

첫 번째 작품은 〈멸종에 저항하는 동지들〉(Comrades Against

Extinction)(2022, 23:00)이라는 영상으로 드수자와 스탈이 안나마렛,

음악적 행진을 보여준다. 핀란드 의회를 마주보고 있는 헬싱키의 주요

동물들의 그림으로 뒤덮인 거대한 탑으로 구성되어 있다. 탑의 제막식 날,

human)의 생명체의 공동투쟁의 주축으로 세대간 상호작용, 상호의존성,

두 번째 설치작품은 네 곳의 감상 포인트를 갖는다. 이곳에서 관람객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 네 차례의 청문회에서 제시된

증거 중에서 발췌된 증거를 볼 수 있다. 이는 네덜란드 정부와 유니레버,

ING 그룹, 에어버스 등 네덜란드에 등록한 다국적 기업들을 기소한다.

마찬가지로 광주시립미술관의 재판소에서는 2023년 4월 7일부터 9

일 사이에 열리는 증거심리를 통해 한국정부와 한화, 두산, 포스코 등

한국기업을 기소하기 위한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안나마렛, 알리 사드, 그리고 필로멜라 합창단은 이러한 멸종한 비인간

동지들의 모습이 담긴 피켓을 들고 의회건물부터 광장까지 행진했다.

드수자와 스탈이 쓴 대본을 토대로 악보는 이러한 멸종한 동물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멸종에 저항하는 인간과 인간 너머(more-than-

재생과 같은 구호를 담고 있다.

아니 알리프, 알리 사드, 필로멜라 합창단과 협력해 작업한 설치와

광장에 세워진 설치작품은 식민지시대 초기부터 현재까지 멸종한

마지막 공간에서는 다른 두 점의 설치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ROOM IV: COMRADES AGAINST EXTINCTION

In the fourth and final space on the first floor, one encounters two different installations.

ROOM III:

COMRADES IN EXTINCTION

Signs are raised depicting extinct plants which are part of the

Comrades in Extinction series (2020-21), each of which is

the outer forms of the plants are maintained through small

tapes and wires, traces of scientists' attempts to maintain

the ghostly shape of these massacred earth workers. They

serve as violent reminders that the perverse notion of colonial

"discovery" is inherently tied to erasure: for those that wage

extinction wars care not to know the world, but only to own

it. Ownership and the so-called "right" to ownership that the

CICC fundamentally rejects, equals death and extinction.

termed "comrade" in a different language. Upon closer look,

The first is the video Comrades Against Extinction (2022, 23:00 min), depicting an installation and musical procession developed by D'Souza and Staal in collaboration with musicians Ánnámáret, Anni Elif, Ali Saad, and the Philomela Choir. Erected on the main square of Helsinki facing the national parliament of Finland, the depicted installation consists of a large tower covered with paintings of animals made extinct from the beginning of the colonial period to the present. During the tower's inauguration, Annámáret, Elif, Saad, and the Philomela Choir led a musical procession from the parliament to the main square while carrying images of these extinct non-human comrades. Based on a script written by D'Souza and Staal, the musical score contains the names of those made extinct, as well as slogans that declare intergenerationality, interdependency, and regeneration as the pillars of our shared human and more-than-human struggles against extinction.

The second installation consists of four viewing corners, where visitors can view selected rotating testimonies from the four public hearings held between October 28 and 31, 2021, prosecuting the Dutch State as well as Dutch registered transnational corporations Unilever, ING Group, and Airbus, during the first CICC at Framer Framed, Amsterdam, as well as witness statements from the three evidentiary hearings held between April 7-9, 2023, prosecuting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Korean corporations Hanwha Group, Doosan Group and POSCO, during the CICC at the Gwangju Museum of Art.

라다 드수자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국제법, 개발학 및 분쟁 연구 교수이다. 드수자는 작가, 비평가이자 평론가이다. 또한 사회 정의 운동 활동가이자 변호사로서 모국인 인도에서 노동 운동과 민주적 권리 운동을 했다. 그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회 정의 운동과 협력하여 개발 도상국에 대한 국제 경제 정책의 영향에 관심을 집중해왔다. 드수자는 "권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Pluto, 2018), "크리슈나 워터스에 대한 국가 간 분쟁』(Orient Longman, 2006)의 저자이며 영국의 공동체 범죄화 반대 캠페인(CAMPACC)과 협력한다.

드수자는 작가 요나스 스탈과 함께 (세대간 기후 범죄 재판소)를 설립했으며 암스테르담 프레이머 프레임드, 쿤스트할레 뮌스터, 헬싱키 페스티벌, 서울 문화비축기지, 포르투시립미술관 등 세계 곳곳에서 프로젝트를 선보인 바 있다.

요나스 스탈은 시각 예술가로, 작업을 통해 예술과 프로파간다, 민주주의의 관계를 다룬다. 그의 전시 프로젝트로는 〈무국적의 예술〉(류블랴나 현대미술관, 2015), 〈스코틀랜드-유럽 의회〉(CCA, 글래스고), 〈의회로서의 미술관〉(로자비 민주 자치 행정부와의 협업, 판 아베 미술관, 아인트호벤, 2018-), 〈우리는 백만 년을 더 요구한다〉(폰다치오네 산드레토레 레바우덴고, 토리노, 2022) 등이 있다. 암스테르담 시립박물관, 앤트워프 M HKA,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퐁피두 메츠 센터, 한국 백남준아트센터, 제7회 베를린 비엔날레, 제31회 상파울루 비엔날레, 제7회 타이베이 비엔날레 등에서 작품을 전시한 바 있다.

『21세기 프로파간다 예술』(MIT Press, 2019), 『미래 핸드북을 위한 트레이닝』(플로리안 말체이셔 공동 편집, Sternberg Press, 2021)를 출판했으며, 학자이자 작가, 변호사, 활동가인 라다 드수자와 함께 (세대간 기후 범죄 재판소>를 설립했다.

조주현은 큐레이터이자 연구자로, 다학제적 큐레이토리얼 리서치 플랫폼

Drifting Curriculum을 운영하며, 현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문화매개전공 겸임 교수, KAIST 인류세연구센터 참여연구원 등으로 활동한다. 최근 아르코 국제예술공동기금 '2021-2022 한국-네덜란드 교류협력프로그램' 의 총괄기획자로 초국가적 협의체 '그린뉴딜을 위한 큐레이토리얼 어젠다'를 구성하였고, 〈세대간 기후범죄 재판소: 재판정에 선 법〉(2022, 서울), 〈변신하는 존재들을 위한 모바일시나리오〉(2022, 암스테르담) 등을 기획했다. 일민미술관 학예실장,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등을 역임했으며, 첨예한 동시대 담론 연구를 바탕으로 다수의 전시, 프로그램, 출판 등을 기획했다. 주요 기획 전시로 《새로운 지구 행성으로의 이주》(2021), 《디어 아마존: 인류세》(2019-2021), 《새일꾼》 (2020), 《공동체 아카이브: 공동의 리듬, 공동의 몸》(2017) 등이 있다.

Radha D'Souza is a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Development and Conflict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Westminster (UK). D'Souza works as a writer, critic and commentator. She is a social justice activist and worked with labor movements and democratic rights movements in her home country of India as an organizer and activist lawyer. She has worked with social justice movements in the Asia-Pacific region to focus attention on the effects of international economic policies on developing countries and against militarism in the region. She is the author of What's Wrong with Rights? (Pluto, 2018) and Interstate Disputes Over Krishna Waters (Orient Longman, 2006) and works with the Campaign Against Criminalizing Communities (CAMPACC) in the UK.

Together with artist Jonas Staal, D'Souza is co-founder of the Court for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CICC). Her artistic projects have been shown internationally, amongst others at Framer Framed, Amsterdam; Kunsthalle Münster; Helsinki Festival; Oil Tank Culture Park, Seoul: and the Galeria Municipal do Porto.

Jonas Staal is a visual artist whose work deals with the relation

between art, propaganda, and democracy. Exhibition-projects include Art of the Stateless State (Moderna Galerija, Ljubljana, 2015). The Scottish-European Parliament (CCA, Glasgow, 2018). Museum as Parliament (with the Democratic Self-Administration of Rojava, Van Abbemuseum, Eindhoven, 2018-ongoing) and We Demand a Million More Years (Fondazione Sandretto Re Rebaudengo, Turin, 2022). His work has been exhibited widely at venues such as the Stedelijk Museum in Amsterdam, M HKA in Antwerp, Moderna Museet in Stockholm, Centre Pompidou-Metz and the Nam June Paik Art Center in Korea, as well as the 7th Berlin Biennale, the 31st São Paulo Biennale and the 12th Taipei Biennale.

Publications include Propaganda Art in the 21st Century (The MIT Press, 2019), and Training for the Future Handbook (With coeditor Florian Malzacher, Sternberg Press, 2021). Together with academic, writer, lawyer and activist Radha D'Souza he is cofounder of the Court for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CICC).

Juhyun Cho is a curator and researcher who runs the multidisciplinary curatorial research platform Drifting Curriculum. Currently, she is an adjunct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at Yonsei University, a researcher of the Center for Anthropocene Studies at KAIST. Recently, as a Curatorial Director of the '2021-2022 Korea-Netherlands Exchange and Cooperation Program' of the Arko International Arts Joint Fund, she formed a transnational consultative body 'Curatorial Agenda for the Green New Deal', and curated showcases such as Court for Intergenerational Climate Crimes: Law on Trial (2022, Seoul), Mobile Scenario for Transformable Beings (2022, Amsterdam), etc. Based on sharp contemporary discourse research through numerous major exhibitions, programs, and publications planned and overseen at the Ilmin Museum of Art, Seoul Museum of Art and MMCA residency, etc., for the past 20 years, she has captured and presented the undisclosed section of urgent social issues in

experimental forms. Her Curatorial projects include Dear Amazon:

Anthropocene (2019-2021); Urban Ritomello: The Archives on

Community (2017); do it 2017: Seoul (2017), and many more.